

특수경비콘텐츠 연구동향

Research Trend of Special Security Contents

김상진 (경기대학교)

차 례

1. 서론
2. 특수경비 콘텐츠의 현황
3. 특수경비 콘텐츠의 연구동향
4. 특수경비 콘텐츠의 발전방향
5. 결론

1. 서론

민간경비 활동은 안전, 보안, 손실예방 등의 용어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서 비롯되며, 위험(risk)이나 범죄(crime) 또는 재난(accident)과 같은 여러 가지 위협(danger)요소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시큐리티(security)라는 용어에 근간을 두고 있다[2]. 시큐리티는 그 밖에 방위 및 방호, 안보라는 개념까지도 수반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리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즉,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신변보호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사회차원에서는 ‘치안유지 활동’으로, 국가차원에서는 ‘안보 및 방위 활동’이라고 표현되어 질 수 있다[3]. 이렇듯 민간경비 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큐리티의 범위는 개인, 사회, 국가 등 모든 범주를 아우를 수 있다. 다만, 공공성과 기업성의 이중주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동이 적용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시각이 모호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갈수록 구체화되어져 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영화가 강조되면서 민간경비 산업도 매우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의 한국은, 경찰인력의 한계와 국가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1967년 청원경찰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청원경찰제도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경비업법 제8차 개정(2001년 4월 7일)을 통하여 ‘특수경비제도’를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기존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찰력의 철수와 민간 자원의 투입은 민영화를 통한 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및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9].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보체제마련에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경비업무는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공공성) 강조되는 특수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업의 종사자)과 다르게,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명령 복종의무, 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 무기안전사용수칙 준수 의무, 단체행동권 금지, 겸업금지 의무 등의 특성이 법률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경비제도는 제도가 시행된 역사가 짧은 점도 있지만, 일부 법률적인 미비, 청원경찰과의 이원화 운용, 특수경비원의 비전문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4], 아직까지 그 효율성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경비제도가 제도로서 안정성있게 정착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학문적으로 접근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특수경비 콘텐츠의 현황

특수경비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국내는 발 빠르게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특수 분야로 구분하여 보안 및 안

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 된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탓에 다소 미비한 부분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먼저, 과도한 경쟁관계 구도, 둘째, 교육적 측면, 셋째, 인적자원에 대한 낮은 질적 수준, 넷째, 청원경찰제도와와의 이원화적인 운용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표 2-1]은 특수경비산업에 대한 업체 현황이다.

표 2-1. 특수경비산업 현황 (2009. 12. 31기준)

년도	2007	2008	2009
업체 수	55	62	84

출처: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

국내 경찰청에 등록되어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 법인의 수는 2009년 12월 기준, 총 3,270개 가운데, 특수 경비 법인은 84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총 인원 수는 146,805명이며, 특수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수는 7,07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5]. 그러나 대부분 서울에 경비업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84개의 특수경비업체 가운데, 서울에서만 44개가 영업을 개시하고 있고, 총 7,075명 가운데 서울에서 특수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수는 6,096명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비원의 숫자만 두고 보았을 때 서울에서 종사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이 총 인원수에 약 8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에서 경비업을 하고 있는 업체간 경쟁이 얼마나 과도한지를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경비원의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강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경비원 교육이 다소 상이하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주(州)의 대부분은 임용 전 교육과 임용 후 교육으로 분류시켜 이론과 실전을 몸소 익힐 수 있도록 경비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업종에 맞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도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비원 교육을 임용 후 3년간 8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경비원 자신의 업무에 맞게 교육을 실전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각종 국가 중요시설이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대상이 적지 않은 가운데,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경비원은

배치 후 자기담당 대상시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게 되므로 교육과정에 있어서 더욱 폭넓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특수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대부분이 경력이 전문 고졸 정도의 학력으로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 또한 높은 관계로 경비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인원 채우기 방식의 인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질적인 인원의 선별작업이 매우 중요하게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 간부 및 경찰 출신 등 경력우선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호경비 관련 전공자 특별채용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원경찰과의 이원화적 운용이다. 청원경찰은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위험성이 내재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은행이나 국가중요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경비원도 경찰도 아닌 상태에서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강하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갈수록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크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안내 서비스 형태로 강조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여자 청원경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본래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간첩활동을 비롯한 범죄예방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경비원과 청원경찰과의 법적지위를 통합시키는 것도 적절한 것이다. 특히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가의 중요시설을 전담하고 있으나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도 충분히 검토 및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특수경비 콘텐츠의 연구동향

특수경비업은 경비업법 8차 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제도가 신설되어졌는데, 그동안의 선행연구로는 약 15건으로 양적연구 논문 4건, 질적연구 논문은 11건으로, 연구방향은 교육훈련(전문성포함)이 5건[1][13][14][4][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직무수행 발전방안(1건)[5], 제도적 도입 및 개선방안(2건)[7][8], 사기진작 방안(1건)[11], 경비원의 직무만족요인(1건)[10], 직업선택 동기와 직업평가(1건)[9], 위기관리학습(1건)[12] 등이 있다. 이처럼 교육훈련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특수경비 콘텐츠가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특수경비 콘텐츠의 발전방향

특수경비 콘텐츠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정을 위하여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설치된 제도이다. 최근 가까운 동남아권에서 테러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도 테러에 대한 위협정도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해외진출 빈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으로 부터 불안지수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협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수경비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고, 경비원 개개인이 화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정을 통하여 국내에 대한 위협요소 뿐만 아니라, 해외영역까지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 있는 퇴임 특수경찰 및 특수부대 출신의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통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직업상 위협에 노출이 많은 해외파견 기자, 선교사, 정치인 등에 대한 경호경비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면 특수경비 제도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특수경비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자국의 다국적기업은 스스로 안전 및 안보를 위한 보안서비스가 철저히 마련되어야 하고, 대비되어야 한다. 이에 맞는 가장 근접한 조직이, 특수경비조직이 현 제도상 가장 적합할 것이다.

5. 결론

특수경비 콘텐츠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임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질 낮은 인적자원의 확보, 경비원의 낮은 처우와 임금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 중요시설 등이 있

는 가운데 교육 과정에서 대상시설에 맞는 실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제도와이의 이원화적 운영으로 인하여 특수경비제도가 발전하기에 모호한 환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산업계와 현실적 차원에서 상호간 접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자국의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 출신 등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재취업시킴으로써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행위를 포함한 각종 인질 및 폭발 테러에 대한 위협이 국내를 포함한 국제적 이슈로 날로 확산되어지고 있으므로, 특수경비제도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경비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내에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시킬 수 있다면 안전을 견지하는 본 시장성과 결부하여 매우 큰 장점 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전투력을 지닌 조직을 국가적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시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과제 등이 내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제시한 방향이 타당성이 있다면, 더욱 발전적 견지에서 많은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길훈,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권, 2003.
- [2] 김상진, 텔파이기법을 이용한 민간군사경비업의 도입과 발전 방안,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3] 김영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재조정, 세계정치: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의 안보구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역음, 서울: 인간사랑, 2006.
- [4] 김종용·이상철, 특수경비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2008.
- [5] 김용욱,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항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6권, 2005.
- [6] 박동균·김태민, 특수경비원 신입 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2호, 2009.
- [7] 박병식,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 인문사회과학연구, 제6권, 2000.
- [8] 이상원·박주현, 특수경비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권, 2007년.
- [9] 안황권, 특수경비원의 직업선택동기와 직업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연구, 제12호, 2006.
- [10] 안황권,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7권, 2004.
- [11] 안황권, 특수경비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타리서치, 제17권 1호, 2006.
- [12] 안황권, 위기관리학습에 관한 연구: 특수경비원의 조직학습화와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타리서치, 제16권 5호, 2005.
- [13] 오윤성,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전문화방안: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권, 2007.
- [14] 최은하·유영재·이상민,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6권, 2008.
- [15]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검색일. 2010년 6월 30일

저자소개

● 김 상 진(Sang-Jin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체육학사)
- 2003년 2월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경호학 석사)
-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경호안전학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강사

<관심분야> : 민간경비, 민간군사경비, 테러리즘, 범죄예방, 시큐리티 정책